

플라스틱 및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라벨 표시 실태

김명신¹ · 김효정² · 김미라^{1*}

¹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장수생활과학연구소, ²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인간환경복지연구소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Caution Labels on Cooking Utensils Made from Plastics and Glass

Myung-Shin Kim¹, Hyochung Kim² and Meera Kim^{1*}

¹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²School of Human Counseling & Welfare, The Institute of Human Environmental Welfare, Inje University, Gimhae 621-749,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caution labels on cooking utensils made from plastics or glass, toward suggesting improvements in labeling for consumer's safe use. Distributor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plastic kitchen utensils were categorized into seven types according to usage, and glass kitchen utensils were categorized into two types. Generally, the percentage of cooking utensils made from plastics or glass that have caution labels were not high. For the types of labels on cooking utensils made from plastic and glass, sticker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and of these, a high percentage scored "fair" in label perception.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regulations are needed to strengthen caution labels for kitchen utensils.

Key words : caution labels, cooking utensils, plastics, glass

서 론

식품을 조리하고 보관하는데 필요한 식품용 기구들의 라벨은 기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용 기구에 라벨이 없거나 라벨이 있더라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들은 식품용 기구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우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최근 가정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품용 기구와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식품용 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에 접수된 강화 유리 냄비뚜껑 자파 현상과 관련된 위해 사례 60건을 분석한 결과, 53건은 조리 중에, 7건은 세척 후 보관 중에 자파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자파 현상으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는 19건이었다(<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1&idxn=256289>). 한편,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유해 물질 검출에 대한 연구(Lee HK 2004)에

의하면 멜라민 식기 시료를 식품공전대로 실험했을 경우, 기준 규격(4 mg/L 이하)에 적합하였으나, 끓는 물을 5분 이상 방치하거나 전자레인지로 2분 이상 가열했을 때 기준치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혜진(2005)의 유리 식기류의 안전 실태 결과에 의하면 유리 냄비뚜껑을 약간 열어둔 상태에서 강한 불로 10분간 가열한 후 뚜껑을 상온수에 넣는 시험에서 총 11개 중 8개 제품이 파열되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가 상품 영역의 내용과 거래 조건 등을 경험만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을 경우, 적절한 선택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하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의 적절한 표시가 필요하다(Kong GB 2002). 따라서 표시는 제품 정보에 관한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며, 특히 소비자가 개개의 상품을 쉽게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일차적인 수단이 된다(Ko & Yeo 2007). 특히 사용이나 취급 시 안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소비자가 가진 지식과 정보만으로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물품의 구매나 사용 등의 일상생활에서 물품 영역의 내용에 대한 표시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다(Lee & Yeo

* Corresponding author : Meera Kim, Tel : +82-53-950-6233, E-mail: meerak@knu.ac.kr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식품첨가물이나 영양소 표시에 관한 것들(Choi & Kim 1994, Kim et al 1999, Choi SH 2005)이 대부분이고, 식품용 기구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실태에 관한 연구는 수행된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용 기구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표시 사항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합성수지제 및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라벨 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용 기구 중 합성수지제 및 유리제 식품용 기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라벨 표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명의 훈련받은 조사자들이 매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업체를 재래시장, 대형 마트, 일반 슈퍼마켓, 백화점 등 총 4개로 분류하였다. 대형 마트의 경우 지역별로 식품용 기구의 판매 품목 및 제조회사를 조사한 결과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지역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재래시장 및 일반 슈퍼마켓의 경우, 업체 특성상 하나의 유통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판매되는 제품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조사지역을 서울과 대구·경북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지역별로 조사한 유통업체는 대구·경북 지역은 재래시장 4곳, 대형 마트 5곳, 일반 슈퍼마켓 5곳, 백화점 4곳이었고, 서울은 재래시장 2곳, 대형 마트 2곳, 일반 슈퍼마켓 3곳, 백화점 2곳이었다.

2. 조사 내용

1) 식품용 기구의 분류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는 유사한 사용 형태별로 7개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유리제 식품용 기구는 유사한 사용 형태별로 2개군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기구 군에 대한 세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조사된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는 바구니류 61개, 물통류 59개, 컵류 41개, 보관 용기류 72개, 양념통류 71개, 젓병류 16개, 도마 등 소도구류 112개로 총 432개이었고, 유리제 식품용 기구는 컵·물병류 98개, 보관 용기류 93개로 총 191개이었다.

2)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내용 분류

식품용 기구의 라벨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의 표시 내용 분류는 사용 전 세척 사항,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조리 용 사용 여부, 오븐·그릴·핫플레이트 등 사용에 의한 주의사항, 기름기 많은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냉동 시 충격주의, 화기 접근 주의, 술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 충격주의 등 총 10가지로 구분하였다.

3)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형태 분류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형태는 라벨 형태와 라벨 인식 용이도 2가지로 구분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벨 형태: 스티커, 태그(tag), 속지·띠지, 제품에 새김, 박스 인쇄로 구분
- 라벨 인식 용이도: 라벨의 표시 사항을 보았을 때 알아

Table 1. Category of cooking utensils

Material of utensil	Category	Item
Plastics	Class of baskets	Basket, bowl, colander, etc.
	Class of water bottles	Water bottle, water bottle for children, etc.
	Class of cups	Cup, measuring cup, etc.
	Class of containers	Container, lunch box, etc.
	Class of cruets	Cruet, ketchup container, etc.
	Class of feeding bottles	Feeding bottle, etc.
	Others	Cutting board, steel plate, ice chest, ladle, tuner, handy blender, shaker, lemon squeezer, garlic chopper, lid of microwave container, spatular, rice paddle, strainer, rice bin, brush for seaweed, fork, spoon, etc.
Glass	Class of cups and water bottles	Water bottle, cup, glass of wine, ice flake bowl, etc.
	Class of containers	Container, cruet, jar for coffee maker, plate, pot, steamer, etc.

볼 수 있는 정도(글자 크기, 사용 설명의 이해도, 외국어 표기 이해도)를 훈련받은 조사자 3명이 확인하여 상, 중, 하로 평가

연구 결과

1.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 내용 실태

1)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

조사된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 전체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실태를 살펴보면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항목별로 표시율이 50.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시 주의사항 항목 중 가장 높은 표시율을 보인 것은 화기 접근 주의(48.4%)였고, 그 다음은 술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25.0%), 충격주의(20.8%) 순이었다. 한편, 가정 내에서 전자레인지 및 식기 세척기의 사용은 보편화되고 있으나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의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율이 각각 10.0%와 3.9%로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정확한 표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기구군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실태

기구군별로는 화기 접근 주의 표시율은 바구니류의 경우 67.2%로 다른 기구군에 비해 표시율이 높았고, 술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그리고 충격주의에 대한 표시율은 보관 용기류(41.7%, 34.7%, 30.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관 용기류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 항목 수나 표시율이 다른 기구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유통업체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실태

유통업체별로는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의 경우 화기 접근 주의(48.4%), 술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26.5%), 충격주의(11.6%) 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조리용 사용 여부, 기름기 많은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냉동 시 충격주의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화기 접근 주의의 경우 바구니류(66.7%)와 컵류(60.0%)의 표시율이 다른 기구군에 비해 높았고, 술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는 보관 용기류(52.2%), 충격주의는 컵류(33.3%)의 표시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젓병류의 경우에는 사용 시 주의사항의 모든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의 경우

화기 접근 주의(53.2%), 충격주의(34.7%), 술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23.4%) 순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기름기 많은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화기 접근 주의의 경우, 바구니류(73.3%), 컵류(70.0%), 보관 용기류(66.7%) 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술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58.3%), 충격주의와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은 보관 용기류(66.7%)의 표시율이 다른 기구군에 비해 높았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의 경우, 화기 접근 주의(59.6%), 술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34.3%), 충격주의(14.1%) 순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조리용 사용 여부, 냉동 시 충격주의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기 접근 주의에 대한 표시는 컵류의 경우 모두 표시되어 있었고, 술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는 컵류의 표시율이 57.1%로 다른 기구군에 비해 표시율이 높았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은 보관 용기류(29.0%)만 표시되어 있었다.

백화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의 경우 충격주의(27.8%), 화기 접근 주의(16.7%) 순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항목별 표시율이 낮았다. 세부 항목별로 충격주의는 바구니류와 보관 용기류가 각각 66.7% 표시되어 있었고, 화기 접근 주의는 바구니류(66.7%)의 표시율이 가장 높았다. 술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와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은 보관 용기류와 도마 등 소도구류에서만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컵류, 양념통류, 젓병류에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의 모든 항목에 대해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합성수지제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화기 접근 주의, 술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 충격주의에 대한 표시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았다. 합성수지제의 경우 대부분 열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내열 온도 등에 대한 표시 사항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구군별로는 보관 용기류의 경우,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율이 높았으며, 유통업체별로는 백화점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의 경우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율이 대체로 낮았으며 나타났다.

2) 유리제 식품용 기구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경우에는 재질 특성상 충격주의에 대한 표시율(58.6%)이 다른 표시에 비해 가장 잘 되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율은 대체로 낮았다(Table 3).

Table 2. Percentage of caution labels on cooking utensils made from plastics

N(%)

Distributor	Caution	Class of baskets	Class of water bottles	Class of cups	Class of containers	Class of cruets	Class of feeding bottles	Others	Total
	Total	61	59	41	72	71	16	112	432
Total	Matters relating to washing before use	2(3.3)	0(0.0)	0(0.0)	2(2.8)	4(5.6)	2(12.5)	4(3.6)	14(3.2)
	Can be used in a dishwasher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0(0.0)	1(2.4)	6(8.3)	4(5.6)	0(0.0)	6(5.4)	17(3.9)
	Can be used in microwave oven and accompanying precaution	2(3.3)	3(5.1)	2(4.9)	25(34.7)	6(8.5)	2(12.5)	3(2.7)	43(10.0)
	Can be used for cooking	0(0.0)	0(0.0)	0(0.0)	0(0.0)	0(0.0)	0(0.0)	2(1.8)	2(0.5)
	Precaution in using oven/grill/hot plate	0(0.0)	0(0.0)	0(0.0)	8(11.1)	3(4.2)	0(0.0)	2(1.8)	13(3.0)
	Precaution when used with oily food products	0(0.0)	0(0.0)	0(0.0)	2(2.8)	0(0.0)	0(0.0)	0(0.0)	2(0.5)
	Precaution on shock when keeping in a freezer	0(0.0)	0(0.0)	0(0.0)	0(0.0)	3(4.2)	0(0.0)	0(0.0)	3(0.7)
	Do not place close to the fire	41(67.2)	21(35.6)	23(56.1)	39(54.2)	29(40.8)	4(25.0)	52(46.4)	209(48.4)
	Do not clean with brush or polishing powder	14(23.0)	11(18.6)	9(22.0)	30(41.7)	21(29.6)	0(0.0)	23(20.5)	108(25.0)
	Precaution on shock	15(24.6)	17(28.8)	11(26.8)	22(30.6)	4(5.6)	0(0.0)	21(18.8)	90(20.8)
	Total	33	15	15	23	35	2	32	155
Traditional market	Matters relating to washing before use	0(0.0)	0(0.0)	0(0.0)	0(0.0)	0(0.0)	0(0.0)	2(6.3)	2(1.3)
	Can be used in a dishwasher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0(0.0)	1(6.7)	1(4.4)	0(0.0)	0(0.0)	2(6.3)	4(2.6)
	Can be used in microwave oven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1(6.7)	1(6.7)	5(21.7)	0(0.0)	0(0.0)	1(3.1)	8(5.2)
	Can be used for cookin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recaution in using oven/grill/hot plate	0(0.0)	0(0.0)	0(0.0)	0(0.0)	0(0.0)	0(0.0)	1(3.2)	1(0.7)
	Precaution when used with oily food products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recaution on shock when keeping in a freezer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Do not place close to the fire	22(66.7)	3(20.0)	9(60.0)	11(47.8)	14(40.0)	0(0.0)	16(50.0)	75(48.4)
	Do not clean with brush or polishing powder	9(27.3)	2(13.3)	3(20.0)	12(52.2)	8(22.9)	0(0.0)	7(21.9)	41(26.5)
	Precaution on shock	3(9.1)	1(6.7)	5(33.3)	4(17.4)	2(5.7)	0(0.0)	3(9.4)	18(11.6)
	Total	15	26	10	12	20	12	29	124
Large discount store	Matters relating to washing before use	2(13.3)	0(0.0)	0(0.0)	1(8.3)	4(20.0)	2(16.7)	1(3.5)	10(8.1)
	Can be used in a dishwasher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0(0.0)	0(0.0)	3(25.0)	4(20.0)	0(0.0)	1(3.5)	8(6.5)
	Can be used in microwave oven and accompanying precaution	2(13.3)	2(7.7)	1(10.0)	8(66.7)	6(30.0)	2(16.7)	1(3.5)	22(17.7)
	Can be used for cooking	0(0.0)	0(0.0)	0(0.0)	0(0.0)	0(0.0)	0(0.0)	1(3.5)	1(0.8)
	Precaution in using oven/grill/hot plate	0(0.0)	0(0.0)	0(0.0)	2(16.7)	3(15.0)	0(0.0)	1(3.5)	6(4.8)
	Precaution when used with oily food products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recaution on shock when keeping in a freezer	0(0.0)	0(0.0)	0(0.0)	0(0.0)	3(15.0)	0(0.0)	0(0.0)	3(2.4)
	Do not place close to the fire	11(73.3)	13(50.0)	7(70.0)	8(66.7)	6(30.0)	4(33.3)	17(58.6)	66(53.2)
	Do not clean with brush or polishing powder	2(13.3)	5(19.2)	2(20.0)	7(58.3)	8(40.0)	0(0.0)	5(17.2)	29(23.4)
	Precaution on shock	8(53.3)	11(42.3)	5(50.0)	8(66.7)	1(5.0)	0(0.0)	10(34.5)	43(34.7)

Table 2. Continued

Distributor	Caution	Class of baskets	Class of water bottles	Class of cups	Class of containers	Class of cruets	Class of feeding bottles	Others	Total
	Total	10	15	7	31	13	0	23	99
Supermarket	Matters relating to washing before use	0(0.0)	0(0.0)	0(0.0)	1(3.2)	0(0.0)	0(0.0)	1(4.4)	2(2.0)
	Can be used in a dishwasher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0(0.0)	0(0.0)	1(3.2)	0(0.0)	0(0.0)	0(0.0)	1(1.0)
	Can be used in microwave oven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0(0.0)	0(0.0)	9(29.0)	0(0.0)	0(0.0)	0(0.0)	9(9.1)
	Can be used for cookin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recaution in using oven/grill/hot plate	0(0.0)	0(0.0)	0(0.0)	3(9.7)	0(0.0)	0(0.0)	0(0.0)	3(3.0)
	Precaution when used with oily food products	0(0.0)	0(0.0)	0(0.0)	1(3.2)	0(0.0)	0(0.0)	0(0.0)	1(1.0)
	Precaution on shock when keeping in a freezer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Do not place close to the fire	6(60.0)	5(33.3)	7(100.0)	17(54.8)	9(69.2)	0(0.0)	15(65.2)	59(59.6)
	Do not clean with brush or polishing powder	3(30.0)	4(26.7)	4(57.1)	8(25.8)	5(38.5)	0(0.0)	10(43.5)	34(34.3)
Precaution on shock	2(20.0)	4(26.7)	1(14.3)	6(19.4)	1(7.7)	0(0.0)	0(0.0)	14(14.1)	
	Total	3	3	9	6	3	2	28	54
Department store	Matters relating to washing before use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an be used in a dishwasher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0(0.0)	0(0.0)	1(16.7)	0(0.0)	0(0.0)	3(10.7)	4(7.4)
	Can be used in microwave oven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0(0.0)	0(0.0)	3(50.0)	0(0.0)	0(0.0)	1(3.6)	4(7.4)
	Can be used for cooking	0(0.0)	0(0.0)	0(0.0)	0(0.0)	0(0.0)	0(0.0)	1(3.6)	1(1.9)
	Precaution in using oven/grill/hot plate	0(0.0)	0(0.0)	0(0.0)	3(50.0)	0(0.0)	0(0.0)	0(0.0)	3(5.6)
	Precaution when used with oily food products	0(0.0)	0(0.0)	0(0.0)	1(16.7)	0(0.0)	0(0.0)	0(0.0)	1(1.9)
	Precaution on shock when keeping in a freezer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Do not place close to the fire	2(66.7)	0(0.0)	0(0.0)	3(50.0)	0(0.0)	0(0.0)	4(14.3)	9(16.7)
	Do not clean with brush or polishing powder	0(0.0)	0(0.0)	0(0.0)	3(50.0)	0(0.0)	0(0.0)	1(3.6)	4(7.4)
Precaution on shock	2(66.7)	1(33.3)	0(0.0)	4(66.7)	0(0.0)	0(0.0)	8(28.6)	15(27.8)	

Table 3. Percentage of caution labels on cooking utensils made from glass

N(%)

Distributor	Caution	Class of cups and water bottles	Class of containers	Total
	Total	98	93	191
Total	Matters relating to washing before use	0(0.0)	1(1.1)	1(0.5)
	Can be used in a dishwasher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7(7.5)	7(3.7)
	Can be used in microwave oven and accompanying precaution	7(7.1)	23(24.7)	30(15.7)
	Can be used for cooking	0(0.0)	4(4.3)	4(2.1)
	Precaution in using oven/grill/hot plate	6(6.1)	16(17.2)	22(11.5)
	Precaution on shock when keeping in a freezer	0(0.0)	0(0.0)	0(0.0)
	Do not place close to the fire	10(10.2)	12(12.9)	22(11.5)
	Do not clean with brush or polishing powder	6(6.1)	20(21.5)	26(13.6)
	Precaution on shock	61(62.2)	51(54.8)	112(58.6)
	Total	24	28	52
Traditional market	Matters relating to washing before use	0(0.0)	0(0.0)	0(0.0)
	Can be used in a dishwasher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2(7.1)	2(3.9)
	Can be used in microwave oven and accompanying precaution	1(4.2)	5(17.9)	6(11.5)
	Can be used for cooking	0(0.0)	0(0.0)	0(0.0)
	Precaution in using oven/grill/hot plate	1(4.2)	4(14.3)	5(9.6)
	Precaution on shock when keeping in a freezer	0(0.0)	0(0.0)	0(0.0)
	Do not place close to the fire	1(4.2)	3(10.7)	4(7.7)
	Do not clean with brush or polishing powder	0(0.0)	0(0.0)	0(0.0)
	Precaution on shock	17(70.8)	12(42.9)	29(55.8)
	Total	42	24	66
Large discount store	Matters relating to washing before use	0(0.0)	0(0.0)	0(0.0)
	Can be used in a dishwasher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0(0.0)	0(0.0)
	Can be used in microwave oven and accompanying precaution	3(7.1)	2(8.3)	5(7.6)
	Can be used for cooking	0(0.0)	1(4.2)	1(1.5)
	Precaution in using oven/grill/hot plate	1(2.4)	0(0.0)	1(1.5)
	Precaution on shock when keeping in a freezer	0(0.0)	0(0.0)	0(0.0)
	Do not place close to the fire	4(9.5)	2(8.3)	6(9.1)
	Do not clean with brush or polishing powder	4(9.5)	6(25.0)	10(15.2)
	Precaution on shock	26(61.9)	15(62.5)	41(62.1)
	Total	8	13	21
Super-market	Matters relating to washing before use	0(0.0)	1(7.7)	1(4.8)
	Can be used in a dishwasher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2(15.4)	2(9.5)
	Can be used in microwave oven and accompanying precaution	2(25.0)	9(69.2)	11(52.4)
	Can be used for cooking	0(0.0)	0(0.0)	0(0.0)
	Precaution in using oven/grill/hot plate	2(25.0)	9(69.2)	11(52.4)
	Precaution on shock when keeping in a freezer	0(0.0)	0(0.0)	0(0.0)
	Do not place close to the fire	2(25.0)	1(7.7)	3(14.3)
	Do not clean with brush or polishing powder	0(0.0)	4(30.8)	4(19.0)
	Precaution on shock	2(25.0)	3(23.1)	5(23.8)
	Total	24	28	52
Department store	Matters relating to washing before use	0(0.0)	0(0.0)	0(0.0)
	Can be used in a dishwasher and accompanying precaution	0(0.0)	3(10.7)	3(5.8)
	Can be used in microwave oven and accompanying precaution	1(4.2)	6(21.4)	7(13.5)
	Can be used for cooking	0(0.0)	3(10.7)	3(5.8)
	Precaution in using oven/grill/hot plate	0(0.0)	2(7.1)	2(3.8)
	Precaution on shock when keeping in a freezer	0(0.0)	0(0.0)	0(0.0)
	Do not place close to the fire	3(12.5)	5(17.9)	8(15.4)
	Do not clean with brush or polishing powder	0(0.0)	8(28.6)	8(15.4)
	Precaution on shock	12(50.0)	17(60.7)	29(55.8)

(1) 기구군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실태

기구군별로 살펴보면 보관 용기류(54.8%)에 비해 컵·물병류(62.2%)의 경우 충격주의 표시율이 높았고 컵·물병류에 비해 보관 용기류의 경우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오븐·그릴·핫플레이트 등 사용에 의한 주의사항, 화기 접근 주의, 솔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 표시율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관 용기류, 컵·물병류 모두 냉동 시 충격주의에 대한 표시는 전혀 없었고, 컵·물병류에서는 사용 전 세척 사항,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조리용 사용 여부에 대한 표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유통업체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실태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경우, 충격주의에 대한 표시가 55.8%로 가장 높았고, 그 외의 항목에 대한 표시 비율은 2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전 세척 사항, 조리용 사용 여부, 냉동 시 충격주의, 솔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에 대한 표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충격주의에 대한 표시 비율은 컵·물병류 70.8%, 보관 용기류 42.9%이었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 비율은 컵·물병류가 4.2%, 보관 용기류는 17.9%이었다. 한편,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는 보관 용기류의 표시 비율이 7.1%이었으나, 컵·물병류는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서 표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은 충격주의(62.1%)로 컵·물병류나 보관 용기류의 표시 비율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한편, 보관 용기류의 솔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 표시 비율은 25.0%이었으나 컵·물병류의 솔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 표시 비율은 9.5%이었다. 그리고 사용 전 세척 사항,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냉동 시 충격주의에 대한 표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경우는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과 오븐·그릴·핫플레이트 등 사용에 의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 비율이 각각 52.4%로 가장 높아 다른 유통업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컵·물병류보다는 보관 용기류의 표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조리용 사용 여부, 냉동 시 충격주의에 대한 표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유리제 식품용 기구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에서 표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충격주의(55.8%)로 컵·물병류의 표시 비율은 50.0%, 보관 용기류는 60.7%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화기 접근 주의(15.4%)·솔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15.4%),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13.5%) 순이었다. 사용 전 세척 사항, 냉동 시 충격주의는 컵·물병류

와 보관 용기류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컵·물병류의 경우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조리용 사용 여부, 오븐·그릴·핫플레이트 등 사용에 의한 주의사항, 솔 또는 연마분 사용 금지에 대한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해서 볼 때,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율은 대체로 낮았고, 많은 항목에 대해서 전혀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제의 경우, 충격에 의한 파손이 가장 우려되며, 유리제의 종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가열 방식이 달라지므로 충격주의 및 직화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오븐용 등으로 나누어 용도를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열 유리와 강화 유리(내열 강화 유리)의 특성이 다르므로(<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98939>),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재질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유통업체별로는 재래시장, 대형 마트, 백화점의 경우 충격주의에 대한 표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일반 슈퍼마켓의 경우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과 오븐·그릴·핫플레이트 등 사용에 의한 주의사항의 표시 비율이 가장 높아 유통업체 간에 차이가 있었다.

3.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 라벨 형태

1)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의 라벨 형태를 살펴보면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티커가 6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속지·띠지(14.1%)이었다. 기구군별로 보았을 때 젓병류를 제외하고 스티커 형태가 가장 많았고, 젓병류는 모두 박스 인쇄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라벨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9.7%이었는데, 기구군별로는 컵류(24.4%), 양념통류(18.3%)의 경우 라벨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유통업체별로 보았을 때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모든 기구군에 대해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백화점의 경우 40.7%가 라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컵류, 양념통류에는 라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화점의 경우, 수입산 제품의 판매 비율이 높았고, 이를 번역하여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라벨이 제품의 외관을 가려 상품 가치를 낮춘다고 생각하여 브랜드별로 판매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을 판매대 한 칸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랜드별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일괄적으로 표시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조국의 라벨과 한글 번역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산 식품용 기구의 경우 제조국의 표시 사항을 한글로 바르게 번역·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수입업체를 계도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4. Type of caution labels on utensils made from plastics and glass

N(%)

Distributor	Label type	Plastics							Glass			
		Class of baskets	Class of water bottles	Class of cups	Class of containers	Class of cruets	Class of feeding bottles	Others	Total	Class of cups and water bottles	Class of containers	Total
Total	Total	61	59	41	72	71	16	112	432	98	93	191
	Sticker	48(78.7)	43(72.9)	28(68.3)	45(62.5)	45(63.4)	0(0.0)	56(50.0)	265(61.3)	63(64.3)	52(55.9)	115(60.2)
	Tag	1(1.6)	0(0.0)	0(0.0)	0(0.0)	1(1.4)	0(0.0)	13(11.6)	15(3.5)	0(0.0)	0(0.0)	0(0.0)
	Inner band · paper band	1(1.6)	11(18.6)	1(2.4)	11(15.3)	8(11.3)	0(0.0)	29(25.9)	61(14.1)	5(5.1)	17(18.3)	22(11.5)
	Carved into utensils	9(14.8)	1(1.7)	2(4.9)	7(9.7)	4(5.6)	0(0.0)	2(1.8)	25(5.8)	0(0.0)	0(0.0)	0(0.0)
	Printed in a box	0(0.0)	0(0.0)	0(0.0)	6(8.3)	0(0.0)	16(100.0)	2(1.8)	24(5.6)	17(17.3)	5(5.4)	22(11.5)
	No label	2(3.3)	4(6.8)	10(24.4)	3(4.2)	13(18.3)	0(0.0)	10(8.9)	42(9.7)	13(13.3)	19(20.4)	32(16.8)
Traditional market	Total	33	15	15	23	35	2	32	155	24	28	52
	Sticker	23(69.7)	8(53.3)	12(80.0)	14(60.9)	18(51.4)	0(0.0)	10(31.3)	85(54.8)	9(37.5)	11(39.3)	20(38.5)
	Tag	1(3.0)	0(0.0)	0(0.0)	0(0.0)	0(0.0)	0(0.0)	2(6.3)	3(1.9)	0(0.0)	0(0.0)	0(0.0)
	Inner band · paper band	0(0.0)	3(20.0)	0(0.0)	3(13.0)	3(8.6)	0(0.0)	14(43.8)	23(14.8)	2(8.3)	6(21.4)	8(15.4)
	Carved into utensils	8(24.2)	1(6.7)	2(13.3)	5(21.8)	4(11.4)	0(0.0)	2(6.3)	22(14.2)	0(0.0)	0(0.0)	0(0.0)
	Printed in a box	0(0.0)	0(0.0)	0(0.0)	1(4.3)	0(0.0)	2(100.0)	1(3.2)	4(2.6)	10(41.7)	2(7.1)	12(23.1)
	No label	1(3.0)	3(20.0)	1(6.7)	0(0.0)	10(28.6)	0(0.0)	3(9.4)	18(11.6)	3(12.5)	9(32.1)	12(23.1)
Large discount store	Total	15	26	10	12	20	12	29	124	42	24	66
	Sticker	15(100.0)	20(76.9)	10(100.0)	11(91.7)	16(80.0)	0(0.0)	24(82.8)	96(77.4)	36(85.7)	19(79.2)	55(83.3)
	Tag	0(0.0)	0(0.0)	0(0.0)	0(0.0)	1(5.0)	0(0.0)	2(6.9)	3(2.4)	0(0.0)	0(0.0)	0(0.0)
	Inner band · paper band	0(0.0)	6(23.1)	0(0.0)	0(0.0)	3(15.0)	0(0.0)	3(10.3)	12(9.7)	3(7.1)	5(20.8)	8(12.1)
	Carved into utensils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rinted in a box	0(0.0)	0(0.0)	0(0.0)	1(8.3)	0(0.0)	12(100.0)	0(0.0)	13(10.5)	3(7.1)	0(0.0)	3(4.5)
Super-market	Total	10	15	7	31	13	0	23	99	8	13	21
	Sticker	9(90.0)	13(86.7)	6(85.7)	15(48.4)	11(84.6)	0(0.0)	12(52.2)	66(66.7)	2(25.0)	6(46.2)	8(38.1)
	Tag	0(0.0)	0(0.0)	0(0.0)	0(0.0)	0(0.0)	0(0.0)	3(13.0)	3(3.0)	0(0.0)	0(0.0)	0(0.0)
	Inner band · paper band	0(0.0)	2(13.3)	1(14.3)	8(25.8)	2(15.4)	0(0.0)	8(34.8)	21(21.2)	0(0.0)	4(30.8)	4(19.0)
	Carved into utensils	1(10.0)	0(0.0)	0(0.0)	2(6.5)	0(0.0)	0(0.0)	0(0.0)	3(3.0)	0(0.0)	0(0.0)	0(0.0)
	Printed in a box	0(0.0)	0(0.0)	0(0.0)	4(12.9)	0(0.0)	0(0.0)	0(0.0)	4(4.0)	2(25.0)	1(7.7)	3(14.3)
Department store	Total	3	3	9	6	3	2	28	54	24	28	52
	Sticker	1(33.3)	2(66.7)	0(0.0)	5(83.3)	0(0.0)	0(0.0)	10(35.7)	18(33.3)	16(66.7)	16(57.1)	32(61.5)
	Tag	0(0.0)	0(0.0)	0(0.0)	0(0.0)	0(0.0)	0(0.0)	6(21.4)	6(11.1)	0(0.0)	0(0.0)	0(0.0)
	Inner band · paper band	1(33.3)	0(0.0)	0(0.0)	0(0.0)	0(0.0)	0(0.0)	4(14.3)	5(9.3)	0(0.0)	2(7.1)	2(3.9)
	Carved into utensils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rinted in a box	0(0.0)	0(0.0)	0(0.0)	0(0.0)	0(0.0)	2(100.0)	1(3.6)	3(5.6)	2(8.3)	2(7.1)	4(7.7)
No label	1(33.3)	1(33.3)	9(100.0)	1(16.7)	3(100.0)	0(0.0)	7(25.0)	22(40.7)	6(25.0)	8(28.6)	14(26.9)	

2) 유리제 식품용 기구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라벨 형태로는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와 마찬가지로 스티커(60.2%)가 가장 많았다. 보관 용기류의 경우에는 컵·물병류에 비해 속지·띠지 형태가 많았고 컵·물병류는 보관 용기류에 비해 박스 인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라벨이 없는 경우는 16.8%이었는데, 대형 마트를 제외하고 재래시장, 일반 슈퍼마켓, 백화점 모두 라벨 없음이 20.0%를 넘었다. 특히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컵·물병류의 50.0%,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관 용기류의 32.1%가 라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경우 제품의 라벨 위에 가격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제품 구입 시 라벨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와 마찬가지로 유리제 역시 판매 시 제품의 정보 제공보다 상품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어 라벨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판매 단위마다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 라벨 인식 용이도

1)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에 대한 라벨 인식 용이도는 ‘중’(58.8%), ‘하’(18.5%), ‘상’(13.0%) 순이었고, 식품 기구군 중에서는 컵병류에 대한 라벨 인식 용이도가 가장 높았다(Table 5). 한편, 바구니류, 물통류, 보관 용기류의 경우 라벨이 부착된 비율이 높았지만, 인식 용이도에서 ‘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리제 식품용 기구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경우, 라벨 인식 용이도는 ‘중’(51.3%), ‘하’(22.5%), ‘상’(9.4%) 순으로, 합성수지제 식품용 기구에 비해 ‘상’,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고, ‘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관 용기류의 라벨 인식 용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라벨 인식 용이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쉽고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외국어 대신 한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식품용 기구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표시 사항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합성수지제 및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라벨 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라벨 표시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율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벨의 형태는 스티커가 가장 많았고 라벨 인식 용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등에서 식품용 기구에 대한 표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제4장 표시 제10조에 의하면(<http://www.moleg.go.kr>)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식품등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18호)에 의하면(<http://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2917>)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식품용 기구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강제하는 표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가정용품품질표시법에 따라 합성수지제는 「합성수지가공용품품질표시규정」이, 유리제는 「합화공업용품품질표시규정」이 마련되어 있어(http://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hinpyo/law/law_05.html),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표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용 기구에 대한 소비자 위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의 내용 규정이 아직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사용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용 기구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계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08072식품안064)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문헌

- 김혜진 (2005) 유리식기류 안전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Choi SH (2005) Current issues of food labeling. 여성경제연구 2: 61-79.
 Choi YL, Kim HS (1994) A study on the food labelling system. 충북가정학회지 3: 59-69.
 Kim HS, Baik SJ, Lee KA (1999) Consumers' awareness and

Table 5. Perception of caution labels on cooking utensils made from plastics and glass

N(%)

Distributor	Perception	Plastics							Glass			
		Class of baskets	Class of water bottles	Class of cups	Class of containers	Class of cruets	Class of feeding bottles	Others	Total	Class of cups and water bottles	Class of containers	Total
Total	Total	61	59	41	72	71	16	112	432	98	93	191
	Good	11(18.0)	4(6.8)	5(12.2)	5(6.9)	10(14.1)	3(18.8)	18(16.1)	56(13.0)	12(12.2)	6(6.5)	18(9.4)
	Fair	31(50.8)	32(54.2)	23(56.1)	43(59.7)	40(56.3)	13(81.3)	72(64.3)	254(58.8)	51(52.0)	47(50.5)	98(51.3)
	Poor	17(27.9)	19(32.2)	3(7.3)	21(29.2)	8(11.3)	0(0.0)	12(10.7)	80(18.5)	22(22.4)	21(22.6)	43(22.5)
	No label	2(3.3)	4(6.8)	10(24.4)	3(4.2)	13(18.3)	0(0.0)	10(8.9)	42(9.7)	13(13.3)	19(20.4)	32(16.8)
Traditional market	Total	33	15	15	23	35	2	32	155	24	28	52
	Good	8(24.2)	1(6.7)	2(13.3)	3(13.0)	7(20.0)	0(0.0)	10(31.3)	31(20.0)	8(33.3)	1(3.6)	9(17.3)
	Fair	14(42.4)	9(60.0)	12(80.0)	14(60.9)	16(45.7)	2(100.0)	18(56.3)	85(54.8)	8(33.3)	16(57.1)	24(46.2)
	Poor	10(30.3)	2(13.3)	0(0.0)	6(26.1)	2(5.7)	0(0.0)	1(3.2)	21(13.5)	5(20.8)	2(7.1)	7(13.5)
	No label	1(3.0)	3(20.0)	1(6.7)	0(0.0)	10(28.6)	0(0.0)	3(9.4)	18(11.6)	3(12.5)	9(32.1)	12(23.1)
Large discount store	Total	15	26	10	12	20	12	29	124	42	24	66
	Good	3(20.0)	1(3.8)	2(20.0)	2(16.7)	2(10.0)	3(25.0)	4(13.8)	17(13.7)	2(4.8)	5(20.8)	7(10.6)
	Fair	9(60.0)	14(53.8)	7(70.0)	5(41.7)	13(65.0)	9(75.0)	22(75.9)	79(63.7)	28(66.7)	12(50.0)	40(60.6)
	Poor	3(20.0)	11(42.3)	1(10.0)	5(41.7)	5(25.0)	0(0.0)	3(10.3)	28(22.6)	12(28.6)	7(29.2)	19(28.8)
	No label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Supermarket	Total	10	15	7	31	13	0	23	99	8	13	21
	Good	0(0.0)	2(13.3)	1(14.3)	0(0.0)	1(7.7)	0(0.0)	3(13.0)	7(7.1)	0(0.0)	0(0.0)	0(0.0)
	Fair	6(60.0)	7(46.7)	4(57.1)	21(67.7)	11(84.6)	0(0.0)	16(69.6)	65(65.7)	3(37.5)	6(46.2)	9(42.9)
	Poor	4(40.0)	6(40.0)	2(28.6)	8(25.8)	1(7.7)	0(0.0)	4(17.4)	25(25.3)	1(12.5)	5(38.5)	6(28.6)
	No label	0(0.0)	0(0.0)	0(0.0)	2(6.5)	0(0.0)	0(0.0)	0(0.0)	2(2.0)	4(50.0)	2(15.4)	6(28.6)
Department store	Total	3	3	9	6	3	2	28	54	24	28	52
	Good	0(0.0)	0(0.0)	0(0.0)	0(0.0)	0(0.0)	0(0.0)	1(3.6)	1(1.9)	2(8.3)	0(0.0)	2(3.8)
	Fair	2(66.7)	2(66.7)	0(0.0)	3(50.0)	0(0.0)	2(100.0)	16(57.1)	25(46.3)	12(50.0)	13(46.4)	25(48.1)
	Poor	0(0.0)	0(0.0)	0(0.0)	2(33.3)	0(0.0)	0(0.0)	4(14.3)	6(11.1)	4(16.7)	7(25.0)	11(21.2)
	No label	1(33.3)	1(33.3)	9(100.0)	1(16.7)	3(100.0)	0(0.0)	7(25.0)	22(40.7)	6(25.0)	8(28.6)	14(26.9)

- utilization of food label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 948-953.
- Ko EK, Yeo JS (2007) An analysis of foods labeling standards. *J of Consumer Studies* 18: 1-21.
- Kong KB (2002) A study on evaluation of and improvements in the food labelling system as a communications medium. *M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p 17.
- Lee HK (2004) A survey on realities of consumers' utensils and food container. *KFDA Research Report*.
- Lee KH, Yeo JS (1996) Analysis of consumer behavior on using food label.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34: 235-248.
- <http://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2917>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601&idxno=256289>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98939>
- http://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hinpyo/law/law_05.html
- <http://www.moleg.go.kr>

접 수: 2010년 8월 2일
 최종수정: 2010년 8월 22일
 채 택: 2010년 8월 24일